

기출문제로 수능 익숙해지기

예비 고3생 효과적인 겨울방학 학습법

겨울방학이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실력이 부족한 과목에 올인 하겠다'던 각오도 슬슬 풀어질 시기다. 특히 2010학년도 수능시험이 채 300일도 남지 않은 예비 고3학년들에게 겨울방학은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부터라도 수능시험에 대한 밑그림과 함께 각 영역별 대비책 등 수능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우선 수능의 전체를 파악하고, 이전의 수능 경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는 수능 교과서인 기출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진학사 김은영 수능 수석 팀장의 도움으로 예비 고3생의 효과적인 겨울방학 학습법을 살펴봤다.

기출문제는 수능학습 시작이자 끝

수능시험의 실체를 가장 파악할 수 있는 비법은 수능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수능의 흐름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분석한 뒤 남은 고3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한다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출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풀어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전략적으로 기출문제를 선택하고, 시간 배분 및 영역별, 시기별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복 학습은 필수다.

모의수능도 꼼꼼히 살펴봐야

기출문제 선택의 기본은 5년 이내의 최신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라고 해서 2005~2009년까지 단지 5회의 수능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평가원 및 교육청 등에서 수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시행하는 모의수능 역시 넓은 의미의 기출문제에 속한다.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문제' 골라라

중위권 학생이 상위 1% 학생의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이다. 냉정하게 자기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무턱대고 공부한다면 시간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수학 실력이 중위권에 속하는 예비 수험생은 기본 개념에 근거한 문제인 2점~3점 기출문제로 실력을 다지는 게 좋다. 반면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4점 문제에 도전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신의 실력이 하위권으로 판단되면 고교 2학년용 평가원·교육청 기출문제만으로 구성된 문제집으로 위밍업을 해야 한다.

단기간에 집중해서 유형 파악을

기출문제를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서나 단어장 같은 암기를 학습이나 적합한 학습법이다. 한 예로 외국어영역의 경우 문제가 유형화돼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단기간에 집중하는 학생이나 유형 파악에 도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자기 약점 또한 빨리 확인해서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2010학년도 수능시험이 채 300일도 남지 않았다. 예비 고3생들은 이번 겨울방학동안 수능의 기본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과기원 국제위상 쑥~욱 졸업생들 해외 유명대학 교수 잇단 임용

광주과기원이 졸업생들의 잇따른 해외 유명대학 교수 임용 등으로 인해 국제학계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한 정일석(34) 박사가 올해 1월부터 덴마크공대 광공학과 조교수에 임용됐다.

정 박사는 광주과기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덴마크공대에서 박사후 연구원 자격으로 유럽 내 6개 연구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실리온기반 수직공진레이저에 관한 연구로 덴마크 정부(the Danish research council)로부터 한화 5억4천만원에 상당하는 연구지원금(postdoctoral grant)을 받았다.

정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실리온포토닉스 및 광연결을 위한 실리온기반 수직공진레이저 연구 등 미래 첨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정보통신공학과 졸업생 서상우(36)박사가 뉴욕시립대학(City College of New York) 전자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광주과기원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환경공학과 졸업생 손아정(34)박사가 미국 어번(Auburn) 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광주과기원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특히 동신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한국베트남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인적 교류와 교육 분야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유학생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캠퍼스 소식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국내외 공모전 휩쓸어

최근 2년간 60여개 상 받아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영상 관련 공모전 수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순천대는 2008년 2학기에만 20개 이상의 상을 획득했고, 최근 2년간 60여개의 상과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디자인학과장 정우용 교수는 "국내외의 수많은 공모전에서 각종 상을 획득했고 앞으로도 많은 공모전, 학과행사, 졸업작품전을 통해 학과 역량을 더욱 발휘할 것"이라며 "학생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강해 앞으로도 많은 수상작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순천대는 최근 2년간 캠페스트 영화제에서 주최한 캠퍼스 투어 1위, TUmedia에서 주최한 UCC공모전 1위, 신한은행 CF UCC공모전 1위, 마이헬서하트 풍탁풍탁 건강심장UCC콘테스트 1위,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라 최우수상, 조선대 영상제 최우수상 및 우수상, 우리농UCC공모전 우수상 등 국내외 영상분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예비 특별과의

3월 개원을 앞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과외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기본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 20일까지 5주 일정으로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각각 3시간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이 과정은 형법총론, 민법총칙, 헌법총론 등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비법학 전공자들이 헌법 용어와 형법 등 낯선 용어부터 공부하면서 입학 전 기본 지식을 갖추고 법학적 사고능력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입생 중 일부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예비과정



기간 동안 BTL 생활관에서 지낼 정도로 입학 전부터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은 2월20일 있을 예정이다.

서강정보대 '평생학습 육성사업' 수료식

서강정보대는 최근 대학 서정철 등 9개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생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교육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서강정보대는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08년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대상대학'으로 선정돼 광주 북구청 및 서구청 등과 연계해 두피모발관리사 양성과정 등 9개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조선대 류찬수 교수

지구과학회 부회장

조선대 류찬수(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교수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지구과학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광주여대 김우탁·정혜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광주여자대학교 김우탁(사진 왼쪽) 학생과장과 정혜선 선생이 최근 학생지도와 교육 내실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동신대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교류협정

동신대학교(총장 정기연)가 최근 주한 베트남 대사관(대사 팜 띠엔 반)과 친선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동신대 및 베트남 대학 간 협력 사업, 유학생 교류 확대 등 교육 교류사업과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해가기로 했다.

특히 동신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한국베트남간 교류를 강화하는데 인적 교류와 교육 분야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유학생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광주원광은행

신입 비과세 예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2.6%

062-671-1199

아이엘리시아

062-671-1199